

원·하청 대화와 상생, 두 번째 결실

현대제철에 이어 한강이앰피 원하청 교섭 타결

- 9월16일(수), 한강이앰피 원·하청 노사, 고용안정·처우개선 등에 합의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시청(지청장 신동술)은 경기 김포시 소재 (주)한강이앰피와 레미콘트럭 운송기사로 구성된 하청 노동조합인 한강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지난 9월 16일(수) 원·하청 교섭을 마무리하고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현대제철에 이어 두 번째로 원·하청 노사가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례이고, 중견기업 사례로는 처음이다.

한강이앰피 원·하청 노사는 지난 4월 22일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이후 노동위원회 판단 등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8월부터 본격적인 교섭에 돌입하여,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타결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에는 근로자파견 업체 소속 하청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비롯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원·하청 노사가 배차 및 관련 수당 등 현장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시청은 원활한 교섭 진행을 위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현장을 지도·지원해 왔다. 아울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및 노총 지역지부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며, 원·하청 노사의 입장차를 좁히고 합의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신동술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은 “이번 노사 합의는 원·하청 노사가 대화를 통해 하청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이뤄낸 모범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원·하청 간 상생의 교섭 문화가 관내 산업 현장 전반에 안착될 수 있도록 우리 지청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책임자	과 장	김용현	(032-714-8745)
		담당자	주무관	이재창	(032-714-8748)

